

##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장애인 예배의 실태

한규비\*

위드 코로나 상황에서 온라인 장애인 예배는 현장 예배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공존하는 또 다른 새로운 예배의 장이 될 것이다. 또한 장애인에게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종교의 자유를 증진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것이다. 현재 현장 장애인 예배에 대한 연구 결과는 존재하지만 코로나 이후 온라인 장애인 예배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상태이므로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온라인 장애인 예배를 관찰 조사해보는 시도는 필수적인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코로나 이후 형성되었던 2019~2021년까지의 온라인 장애인 예배가 연구 대상이 될 수 있다. 연구는 참여관찰 조사 방법을 이용하여 현재 방송되고 있는 온라인 장애인 예배를 직접 조사하였고 총 10개의 기준을 바탕으로 구조적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후 이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개선점과 대안 예배 모델을 제시하였다. 수평적인 관계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기독교적 가치관의 관점으로 현재 온라인 장애인 예배를 운영하고 있는 교회의 예배를 분석한 결과 예배 형식, 구조, 특징, 진행 등의 부분에서 개선할 점이 발견되었다. 바로 이런 점에서 환경적 지원 방안, 하이브리드 예배, 참여적 예배 모델, 퍼포먼스적 예배 모델 등 다양한 예배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앞으로 위드 코로나 상황에서 교회가 추구해야 할 장애인 예배를 공유한다. 온라인 장애인 예배가 지녀야 할 중요한 특징은 주체성, 수평적, 비전형적, 참여성 등이었다. 다시 말해, 예배에 참석하는 장애인들이 주체가 되어 예배에 참여하고 예배를 통해 가상의 공간에서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 말씀을 봉독하는 과정에서 수평적인 구조가 요구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예배의 세밀한 요소들이 장애인 당사자들의 입장에서 변화되어야 하고 끊임없이 추가해야 할 부분들이 존재한다. 비장애인은 장애인과 다른 사람들이 아니다. 그들도 예비 장애인이며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자유롭게 만날 권리가 있음을 재해석해야 한다. 기독교 관점으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 모두는 누구 하나 빠짐없이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들이며 그런 우리에게는 함부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혐오할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예배란 장애인들에게도 꼭 필요한 종교적 생활양식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으며 사랑과 공동체 의식이 전제되어있는

\* 이화여자대학교 기독교학과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는 것이 예배인 만큼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예배는 하나님 나라의 리허설로 나이, 성별, 인종, 가치관 등을 뛰어넘어 하나가 되는 공동체로서 편견과 차별을 탈피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어야만 한다.

**주제어 : 장애인 온라인 예배, 위드 코로나, 주체성, 수평적, 비차별적, 참여적, 퍼포먼스**

## I. 서론

### 1. 연구문제 : 코로나 19로 인해 소외당하는 예배자 “장애인”

지난 2020년 느닷없이 찾아온 코로나 19로 인해 사람들의 삶은 제한되고 답답한 상황들을 마주하게 되었다. 그중에서도 교회는 코로나 19 제한 장소가 되었으며 짧은 시간 동안 급격한 변화에 적응해 나가야 했다.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교회는 온라인 예배와 각종 플랫폼을 이용하여 소통하기 시작했으나 그 과정 가운데 주목받지 못하고 소외당하는 예배자가 있었다.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한 부모는 한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은 상처 입은 마음을 호소하였다. “우리 아이는 혼자 마스크를 못 씁니다. 제가 도와줘야 간신히 씁니다. 집에만 데리고 있는 게 너무 답답해 근처 공원에 산책이라도 가려고 하면 마스크를 계속 벗어 던집니다. 그런 아이를 향한 주변 시선은 여전히 따가울 때가 많고 저희는 자진 격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sup>1)</sup>

물론 백신 접종 이후 앞으로 코로나 상황은 과거에 비해 개선될 것이다. 하지만 위드 코로나로 코로나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 세상을 우리는 함께 서로를 배려하며 살아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런 상처 입은 자들이 코로나와 더불어 더 큰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각 사회가 각자의 분야에서 노력해야 한다. 그중 교회는 소외당하는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예비하고 개선해 나가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

필자는 소외당하는 예배자로 꼽히는 노인, 아동, 장애인 중에서도 장애인에 관한 관심이 생겼고 장애인 온라인 예배를 우연히 드리게 되었던 경험이 있다. 비대면 온라인 예배는 날이 갈수록 발전된 형태로 방송되고 있지만, 장애인 온라인 예배는 여전히 장애인들 입장에서 불편한 점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예배자 수가 소수다 보니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갖게 되는 경우도 있다.

장애인들은 사실 코로나 이전에도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그들의 입장을 크게 고려하지 않는 교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이다. 시설적인 측면이나 예배 시스템적인 부분, 장애인 부서를 따로 두는 교회가 많지 않다는 점, 부서가 있더라도 통합예배와 비통합예배에 있어서 원활하게 예배가 운영되지 않는 점 등 다양한 부분이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코로나 19 이후 상황은 장애인들에게 더욱 큰 장애물을 추가로 얹어준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비장애인들이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그들은 불편함을 느낄 수 있고 마땅히 누려야 할 예배

1) 뉴스엔조이. “코로나19예배에서 소외된 사람들 3 : 발달장애인들”. <https://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0579>.

를 드리는 권리를 착취당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위해 조금 더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이 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개선점을 파악하고 대안적 예배 모델이 실제로 적용되길 바란다.

또한 장애인뿐 아니라 이미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소수자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우리는 다수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의 세상을 바라볼 생각조차 하지 못한다. 선량한 차별주의의 저자는 이러한 억압의 상태를 “메릴린 프라이의 새장 비유”를 인용하여 설명한다. 새장을 가까이서 보면 철망이 한 줄씩 보인다. 이렇게 철망을 하나씩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그 얇은 선 하나가 새의 비행을 방해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새장에서 뒤로 물러서서 바라보아야만 그 철망들이 모여 새장을 이루고 있으며 이 새장이 새를 가두고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된다. 이처럼 우리를 가두고 있는 새장도 뒤로 물러나야 볼 수 있다. “구조적으로 연결된 강압과 장벽의 네트워크”가 우리의 날갯짓을 방해하고 있음을 말이다(김지혜, 2019, p.79).

이런 새장이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며 교회의 성도들은 이미 존재하는 새장을 바로 보기 위해 한 발짝 뒤로 물러서야 한다. 성경에도 차별에 대해 기독교의 가치관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sup>2)</sup>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sup>3)</sup>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sup>4)</sup> 등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성도와 그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는 성소에서는 이와 같은 말씀을 본받아 기독교적 가치를 실현해 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소외당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한 수평적인 예배를 마련해야 한다. 과거 성경에 기록된바 종교 위선자들은 어떠한 사랑이나 정의도 없이 그저 자신들의 분별과 판단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며 특정인을 미워했다. 하지만 그 모습에 대해 예수님은 “너희는 사람의 표준대로(육체대로) 판단하지만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sup>5)</sup>고 말씀하신다. 그 누구보다 먼저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사랑을 실천하셨던 예수님이셨고 그를 수없이 비판하는 많은 사람이 있었음에도 ‘두려움’을 딛고 ‘사랑에 기반을 둔 평등한 삶’을 실천하셨다. 적어도 기독교인이라면 그를 따라 두려움을 딛고 평등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누군가를 판단하기에 앞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사람이어야 한다.

2) 야고보서 2:8-9.

3) 로마서 3:22.

4) 갈라디아서 3:28.

5) 요한복음 8:15.

## 2. 연구 필요성 : 온라인 장애인 예배 이해 “예배 및 디지털 예배”

예배란 하나의 의례로 정의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종류가 존재한다. 그리고 의례란 평범한 행위들과는 대조적으로 행해진 것을 구별하고 특권화하기 위해 기획된 특정의 행동 양식이다. 따라서 그 나라의 문화, 인간관, 신에 대한 이해, 의례를 행하는 사람, 공간 등에 따라 다양한 예배 유형이 형성될 수 있다. 즉, 예배에 대한 이해와 인간에 대한 이해 등에 따라서 예배의 구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예배라는 목적은 신에 대한 감사와 경외함을 표하는 자리로서 공통될 수 있지만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예배의 형태는 종교 공동체의 실천적인 차원의 신앙 표현이기 때문에 공동체의 문화가 예배 안에 반영될 수밖에 없으며 얼마든지 앞서 언급한 다양한 요소로 인하여 달라질 수 있다.<sup>6)</sup>

예배는 사회의 상호보완적 관계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의 기준을 반영하고 반대로 교회가 사회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예배는 사회의 종속변수로 남아있다. 따라서 사회에 영향을 받는 예배는 사회라는 독립변수에 의해서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회에서 장애를 바라보는 시선, 인식의 정도에 따라 예배 안에서 장애인들에게 주어지는 양식들 또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장애인 예배와 온라인 예배는 마치 코로나 이후에 등장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일부 교회는 사회에서 장애인을 바라보고 있는 관점에 영향을 받아 장애인 예배(통합, 비통합예배)를 구성하고 있었고 IT기술, 디지털 세상이 도래함에 따라 디지털 기술들이 예배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sup>7)</sup>

온라인 예배의 장소에서도 하나님이 과연 존재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코로나 이전, 코로나 시기에도 여전히 존재한다. 하지만 필자는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은 근거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 성부 성자 성령님의 하나님은 공간적 제한을 받지 않으시며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는 전지전능과 공의의 하나님이다. 워드의 말에 따르면 “우리는 중대한 문화적 변환을 겪고 있는데 러다이트적 비판의 근거로서 전통을 사용하는 기독교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면에서 이곳(디지털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신학적으로 일어내는 일에서 실패하고 있다. 그들은 사실상 우울증, 곧 향수병의 희생자들이다.”라고 디지털 세상의 예배에서의 하나님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실패자라고 지칭하고 있다(Graham Ward 2002, p.56).

<sup>6)</sup> Albrecht, C.. 김한옥 역. 예배학입문. 도서출판 바울, 1999.

<sup>7)</sup> 위의 참고 서적과 동일

디지털이라는 매개는 코로나 시대에 대두된 것일 뿐 그 이전부터 장애인 예배자들의 소외감을 덜어주기 위한 도구로 많이 사용되고 있었다. 집 밖으로 나갈 수 없어서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미사를 시청하는 사람들에게 예배의 장을 마련해주었고 성경을 눈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음성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라마 바이블<sup>8)</sup>과 같은 귀로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온라인상에 다양한 종교 의례가 등장하는 것은 장애인의 종교 자유를 증진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며 장애를 재해석하는 데 도움이 된다. 오프라인 종교 의례의 경우, 장애인의 이동 문제와 의례 공간에의 접근성 문제 때문에 종교 의례에만 참석할 수 있는 반면 온라인상에서는 이동과 접근성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종교에의 참여가 자유로워질 수 있다. 즉, 이미 우리의 삶, 그리고 예배의 장에서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 온라인이라는 공간을 앞으로 위드 코로나의 시대 때에는 더욱 발전된 형태로 그리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장애인에게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사회가 만든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해결책을 주는 도구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이처럼 우리의 생활 세계는 코로나 19 이전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구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온라인 신앙생활이 점차 오프라인의 종교 문화를 변화시킬 태세이다. 따라서 온라인 예배를 더 이상 비인간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결여된 예배라고 비판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지적할 수 있다.<sup>9)</sup> 디지털 이민자가 쇠퇴하고 디지털 원주민이 현재, 미래가 되고 있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모색해야 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은 디지털을 잘 사용하고 다루어서 모두가 평등하고 수용될 수 있는 예배를 만들어나가는 것이다. 하나님 사랑의 실천을 이 시대에 적용하여 더욱 발전되고 편리한 형태의 사랑의 실천을 해나가는 것이 오늘날 디지털 세상을 마주하고 있는 우리에게 직면한 과제이다.

예배를 의식하는 점에서 보았을 때 디지털 예배에 대한 시선이 좋지만은 않았다. 한 교회는 “코로나 상황에서도 대면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코로나 19에 감염된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라며 무조건 대면 예배를 강요하기도 했다.<sup>10)</sup> 코로나 이전부터 생활 종교로서 전환이 되면서 예배에 대한 접근은 특권을 누리는 공식 텍스트들과 교리들보다는 오히려 대중적인 신앙 실행들에 초점을 맞춰왔다. 즉, 예배에 대한 연구의 초점 역시 넓어지면서 대중적인 신앙 행위들과 기도 생활들이 정말로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하지만 이는 장소에 한계를 두지 않고 드리는 예배를 말하고 있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교회의 예배, 경건한 개인주의라는 두

8) 오디오 성경. 위키백과

9) 안선희 (2020: p.28)

10) 일요서울. 교회 목사, 설교 중 “대면 예배 안 하면 지옥 간다.” 발언 논란 <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6050>

개의 별도 영역이 있다는 이전의 개념이 여전히 힘을 잃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경고가 필요하기도 하다.<sup>11)</sup> 하지만 이 경고 또한 위드 코로나 시대를 예상치 못하고 주장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온라인과 오프라인 예배가 불가피하게 혼재되어 있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강제적으로 장소에 한계를 두지 않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물론 그럼에도 예배는 문화와 사회에 영향을 받기에 시대적 흐름에 따라 지속적인 예배의 정의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와 연구는 필요하다.

이러한 예배를 드리는 장애인들에게는 더더욱 공간의 중요성보다는 다른 영역에서의 논의가 필요하다. 예배의 형식, 형태도 중요하겠지만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예배를 받는 대상은 하나님 이시며 예배를 드리는 대상에 따라 형식의 유동성은 예배를 드리는 마음만큼이나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는다.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의 반대와 비난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장애인을 고치시는 일을 행하셨다(마 12:9, 막 3:1) 즉 예수님께서서는 의식보다 생명을 더욱 귀히 여기심을 보여주신 것이다.<sup>12)</sup> 따라서 본 연구에서 장애인 온라인 예배를 살펴보면서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하나님을 위한 이상적인 예배의 모델에 대해 고민하며 모두가 함께 예배드릴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며 이제는 교회 또한 독립변수로 앞장서며 사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II. 본론

### 1. 연구 범위 및 방법

#### 1) 연구자료 및 대상

##### (1) 연구자료

장애인에 대한 정의를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예정이다. 우선 장애인에 대한 일반적 이해와 장애인 예배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기 때문에 성경적 이해(구약, 신약)를 여러 문헌을 통해 연구한다. 연구 자료는 의례지 자료, 기사, 정기간행물, 기존 논문 등을 활용할 것이다. 그 후에는 책을 참고하여 온라인 장애인 예배에 대한 정의를 함께 제시할 예정이다.

11) 안선희 (2020: p.53)

12) 조기웅. "장애인과 함께 드리는 예배 모델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호남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1999. 광주 p22

## (2) 선행연구와 분석대상

국내 연구에서는 특정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 예배에 관한 연구, 장애인을 위한 목회 방안 등만이 연구되었다. 이런 연구 주제를 미루어 보았을 때, 포스트 코로나와 위드 코로나 시기의 예배 형태에 대한 연구가 부족함을 알 수 있으며 장애 유형에도 제한이 있어 조금 더 포괄적인 장애 유형을 대상으로 한 예배 연구가 요구되는 바다.

필자는 기독교적 가치관을 실현하기 위해 코로나 19로 불평등을 겪고 있을 장애인들의 새장을 뒤로 물러나 바로 보기로 했으며 현재 비대면으로 방송되고 있는 장애인 예배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사전 자료 조사를 바탕으로 장애인 온라인 예배 관찰 조사를 통해 알고 싶었던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 이후 장애인 온라인 예배의 현황 둘째, 장애인 온라인 예배의 구성과 순서 및 특징 마지막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장애인 온라인 예배의 문제점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적 장애인 온라인 예배 모델을 다양한 이론을 바탕으로 모색해볼 것이다.

본 연구는 현재 방송하고 있는 장애인 온라인 예배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선행 연구(한국장애인사역연구서 2012)로 코로나19 이전 장애인 대면 예배의 현황을 제시한 논문은 있었지만 코로나19 이후 장애인 온라인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는 없는 것으로 보아 장애인 온라인 예배를 중점으로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었다. 본 연구는 예배를 장애인 온라인 예배를 정의함으로써 예배를 유튜브로 송출하거나 녹화본을 올려주고 있는 교회를 포함한다. 분석 대상이 되는 M 교회와 S교회 등은 대표적으로 온라인 장애인 예배(비통합, 통합)를 드리고 있는 교회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장애인 예배의 특징, 운영 방식, 장애인 예배를 드릴 때의 문제점과 대안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대상이 장애인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이지만 더 구체적인 문제점으로 온라인 예배 접근권 문제와 장애인 참여율 문제를 들 수 있다. 더 나아가 이외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함(환경적 지원방안 및 이론적 대안 예배 모델)으로 장애인들이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 2) 연구방법

첫째, 앞서 제시한 연구 자료를 통해 우선 장애인의 정의를 제시한다. 또한 여러 문헌을 참고하여 장애인 온라인예배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과 정의가 필요하다. 더 나아가 장애인 온라인 예배를 크게 통합예배, 비통합예배로 나누어 분석한다.

둘째, 온라인 장애인 예배의 현황을 직접 조사할 예정이다. 본 연구는 현재 유튜브로 송출하고

있는 장애인 예배를 직접 검색하여 조사할 예정이며 통합예배, 비통합예배를 기준으로 예배의 진행 상황을 참여 관찰을 통해 기록할 것이다. 또한 예배 관찰 보고서 작성을 통해 예배 연구의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작업을 할 것이다. 직접 예배를 참여하여 관찰함으로써 물리적, 심리적으로 현장의 사실을 감각기관에 의해 인지하고 기술하여 자료를 수집한다. 단, 관찰 조사법은 자연적 상황에서 직접적이고 즉각적으로 사실 파악이 가능하지만, 관찰자의 선호에 따라 선택적 혹은 편파적으로 관찰될 수 있는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구조화된 관찰을 선택한다. 구조화된 관찰을 통해 구체적인 관찰 항목을 규정하고 그것에 따라 관찰을 행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구조적 분석을 위한 기준은 총 10개로 다음과 같다. 예배의 참여자 및 장애인 부서 구성, 예배 인도자, 예배 순서 구성 특징 및 진행 방법, 예배 시기, 예배 장소, 정형화와 표준화의 정도, 반복성의 정도, 집합성의 정도, 감정성의 정도, 개방성의 정도이다. 기준 중 정형화와 표준화의 정도란 예배의 형식과 절차가 정해져 있는 정도, 반복성의 정도는 예배를 규칙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정도, 집합성의 정도는 예배에 대한 참여자들의 이해정도, 감정성의 정도는 참여자들의 감정을 공유하는 정도, 마지막으로 개방성의 정도는 예배 참여자 범위의 정도를 뜻한다. 온라인 장애인 예배를 구체적으로 조사하기에 모든 교회의 예배를 분석하는 것보다 통합예배, 비통합예배로 대표되는 예배를 분석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대표적인 교회 두 교회를 집중적으로 비교 관찰 및 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 III. 결론

#### 1. 장애인의 정의

##### 1) 일반적 장애인 이해

장애 및 장애인의 정의는 장애를 바라보는 시각, 시대의 변화와 문화, 사회의 변화에 따라 다르게 정의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개념화하기 어렵다. 따라서 의학적, 법적, 사회적 관념에 따라 다르게 정의할 수 있으며 시대별, 국가별, 학자별로 다르게 정의할 수 있다.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제 2조에서는 “장애인이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을 5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지체장애, 청각장애, 언어장

에 또는 정신지체 등 정신적 결함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UN의 ‘국제장애인권리협약’(2006) 제1조에서는 “장애인은 다양한 장벽과 상호작용으로 다른 사람과 동등한 조건으로 완전하고 실질적인 사회참여를 저해하는 장기간의 신체적, 정신적, 지적 또는 감각적인 손상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국제노동기구(ILO)의 신체장애인의 직업 복귀에 관한 선고 제 99조에서는 장애인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결함의 결과로 적당한 직업을 확보, 유지해 나갈 전망이 없는 상당히 손상을 받은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sup>13)</sup>

미국 재활법(Rehabilitation Act of 1973) 제 7조 제6항에 의하며 장애인을 “주요생활 활동 분야에 있어서 한 분야 이상 실질적인 제한을 주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결함을 가진 자”라고 정의하고 있다.<sup>14)</sup> 하지만 영여표현의 변화를 보았을 때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과거에는 신체적 혹은 정신적 결함이 있다는 ‘handicapped’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지만, 현재는 좀 더 차별적인 표현을 제한한 ‘the person with disability’라고 사용해야 할 것을 권하며, 그 주된 이유는 장애인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장애보다는 ‘사람’으로서 존중받을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람들의 모습이 제각기 다르고 고유하듯 장애도 이런 특성의 일부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변화라고 할 수 있다.<sup>15)</sup>

그 밖에 일본은 심신장애인 대책기본법에서 “심신 장애인 이란 지체부자유, 시각장애, 청각장애, 평균기능장애, 또는 언어기능 장애, 심장 기능 장애, 호흡 기능 장애 등의 신체적 장애 혹은 다른 정신적 결함으로 장기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sup>16)</sup>

따라서 장애인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걷거나 앉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 듣기를 잘 못 하는 사람, 말로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 보는 데 불편함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sup>17)</sup> 즉,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인 면에서 기능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장애로 인하여 사회생활이나 직업 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하지만 최근 장애인을 정의하는 관점이 개별적 모델 중심에서 사회적 모델 중심으로 변화하는 것에 따라 장애인복지서비스모델도 맞춰 변화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sup>18)</sup> 즉, 장애의 원인, 문제

13) 오혜경, 「장애인 복지학 입문」, (1998: p.17)

14) 한국 사회복지 협의회, 「한국 사회복지 총람」 (서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출판사, 1979),95.

15) 임종호 (2013: p.18)

16) 이태영, 「사회복지와 특수교육」 (대구:대구대학교 출판부, 1985), 95.

17) 오혜경 (1988: p.15)

18) 김용구 (2014: p.10)

점, 해결책을 장애인 개인적 속성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개인과 사회의 부적절한 상호작용에서 발견함으로써 문제의 해결책으로 사회 환경의 변화를 추구하는 등의 사회적 모델 중심으로 변화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교회에서의 예배의 물리적 공간, 예배의 진행 순서 등과 같은 세부적인 요인들을 사회적 환경으로 정의했을 때 온라인 예배 또한 장애를 발생시키는 근원지가 될 수 있음으로 예배를 연구하고 그에 맞는 예배 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장애의 정도가 다를 수는 있지만, 장애는 모든 인간이 필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속성 중 하나일 뿐이기 때문에 장애를 가진 사람을 특별하게 정의하며 사람이 아닌 다른 객체로 바라보는 것은 차별을 만들어내는 시초가 될 수 있다. 인간은 모두가 한계를 지닌 존재이며 결함이 없을 수 없다. 그 한계는 인간이 서로의 부족함을 다르다고 규정짓고 혐오로 이어질 때, 즉 공동체성이 결여될 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장애는 개인의 문제, 개인 스스로가 만들어낸 치유 불가능한 병과 증상이 아니라 그런 한계를 장애로 인식하게끔 타자화하는 사회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장애인이란 개념은 절대적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인 개념이다.<sup>19)</sup>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상대적으로 장애를 정의할 수 있으며 어디까지나 장애의 의미는 변할 수 있다. 어쩌면 우리가 안경을 쓰고 있는 사람을 장애인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장애라는 구분을 사회의 노력에 따라 무로 만들 수도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장애인 규정을 통해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정의나 개념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 또는 장애인 차별로 이어지거나 연결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sup>20)</sup>

장애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일반적이고 전통적인 인식은 차별과 편견 그리고 소외였다. 유교 사회의 전통적 체면 문화로 인해 신체적 결함은 타인 앞에서 수치스러운 일이었고 비장애인들도 그들을 보기를 꺼려했다. 그러므로 장애인들은 아무런 죄 없이 고립된 장소에서 생활해야 했고 가족들마저 그들을 외면하고 버리기까지 했다. 과거 장애인을 칭하는 용어를 보면 불구자, 병신, 바보 등의 이름을 사용하여 장애인을 비하하였고 50여 년 간 사용되다가 최근 개역개정판 성경에서 비로소 수정되었지만, 우리말 번역 개역 성경 속에서도 장애인을 소경, 귀머거리, 절뚝발이 등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보아 과거 서구 사회에서도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둡하였는지 추측할 수 있다. 또한 이런 기독교를 바라보는 장애인 분야 학자들이 얼마나 기독교에서의 장애 이해를 비판하였을지 짐작할 수 있다.<sup>21)</sup>

현대에 이르러서는 장애 인식 교육 프로그램과 활발한 연구 등을 통해서 장애에 대한 편견이

19) 김용구 (2014: p.10)

20) 박대규 (2007: p.12)

21) 박대규 (2007: p.20)

바뀌어 장애인을 주체적 인간으로서 바라봐주고 함께 살아가야 하는 존재로서의 의식이 커지면서 공동체적 가치를 추구하는 방향성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 직면한 위드 코로나 상황에서 소외된 자들을 위한 연대성의 연결고리가 얼마나 약해져 있는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면서 함께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동등한 이웃이라는 인식을 가지며 이웃의 불편함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는 자세가 필요함을 역설한다.

## 2) 성경적 장애인 이해

### (1) 구약의 장애인관

구약 성서는 장애를 두 가지 관점으로 바라본다. 하나는 부정적인 장애인 관이고 또 다른 하나는 긍정적인 장애인관이다. 부정적인 면으로는 차별의 대상 혹은 죄의 대가나 결과로서 나타나는 장애인이며 긍정적인 면으로는 보호의 대상, 하나님 섭리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장애인 등이다.

먼저 구약시대에서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들을 무능력한 자로 취급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다. 이는 사무엘하 6~8절에서 다윗 왕이 여부스 사람들을 치려고 할 때 그들은 장님이나 절뚝발이라도 막아낼 수 있다며 큰소리를 치는 장면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다윗 왕 또한 여부스 사람들의 말이 모욕적으로 느껴져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려고 하는 자는 하수구를 통해서 성으로 들어가 다윗이 미워하는 절뚝발이와 장님을 치라고 한다. 따라서 장님과 절뚝발이는 여호와 의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는 속담까지 생긴다. 이 속담은 여부스 사람들이 성에 들어오지 못함을 의미하지만, 그 전제에는 장님과 절름발이를 무능력한 존재로 정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22)</sup>

둘째, 죄의 대가로 장애인이 된 대표적인 경우는 유다 왕 시드기야, 삼손, 소돔성의 사람들에게서 찾을 수 있다. 유다 왕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패하게 되어 두 눈이 뽑히는 상황에 직면하였고(왕하 25:7)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삼손은 죄를 범한 결과 블레셋 사람에 의해 눈이 뽑혀 시각장애인이 되었다. (삿 16:21) 마지막으로 소돔성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천사를 모욕한 죄로 인해 두 눈이 어둡게 된다. (창 19:11) 그 이외에 구약의 하나님은 자신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비유적으로 표현하실 때 소경, 귀머거리, 절름발이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신다. 이는 죄의 대가인 벌이 장애 요인임을 알려주는 근거가 된다.<sup>23)</sup> 하지만 또 죄의 대가가 장애라는 것을 인과관계로 단정 짓지 말아야 할 것은 죄로 인해 벌을 주시는 정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장애를 사용하신다는 점이다.<sup>24)</sup>

22) 조기웅 (1998: p.19)

23) 조기웅 (1998: p.19)

셋째, 장애를 소망의 대상으로 보는 관점이 있다. 이사야 예언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신약시대의 시작을 예고하고 이날에 귀머거리가 듣고 소경이 보며 저는 자가 뛰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다. (사 29:18, 32:4, 35:5-6, 42:7) 또한 예언자들과 시편 기자들은 하나님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 고독한 사람들에게 희망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겔 34:16, 시 146:8-9) 이 구절을 미루어 보아 장애인에 사회적 관점에 의해 정의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 새로운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장애인을 향한 시선 또한 새로워지고 모든 소외된 사람들이 수용될 것을 예고하는 것이다.<sup>25)</sup> 하지만 그 외에 장애인을 보호의 대상, 복지의 객체로만 보거나 장애를 하나님의 섭리로 선택된 사항이라고 보는 관점은 여전히 논란이 되는 의견이며 장애인 당사자들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는 기독교적 해석이기도 하다. 따라서 구약 성서에서는 장애인을 부정적 관점으로 죄의 대가나 무능력한 존재로 비추고 있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장애인을 사용하시고 희망을 품어 하나님 나라에 수용될 것이라는 새로운 시선으로서 긍정적인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 (2) 신약의 장애인관

신약시대에 와서도 장애를 죄의 대가로 보는 시선은 여전히 잔존했다. 하지만 신약성서에서는 공동체와 구성원 각각을 고유한 개체로 바라보는 평등적 관점, 예수님과 사도들의 치유사건과 복음전파 등을 통해 장애에 대한 인식이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고린도전서 12:24에는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 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돌보게 하셨느니라.”라고 말씀하신다. 이 말씀을 미루어 보아 삼위일체 하나님은 평등적 가치를 추구하시는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성소인 교회는 장애뿐만 아닌 성, 인종, 민족, 계급 등 어떤 기준으로든 인간을 판단치 아니하고 사랑으로서 그들을 수용하고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는 하나님께 올려지는 성례전을 중심으로 모이고 그 안에서 나눔과 봉사 기독교 교육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워져 사랑을 품고 세상 속으로 흠여지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sup>26)</sup>

둘째, 예수와 제자들은 장애를 가진 이들의 고통을 공감하여 상처 입은 자들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사역을 끊임없이 이어나갔다. 또한 그들뿐만 아니라 그 시대 사람들의 장애인을 향한 관점이 변화했다는 것도 신약 성서에서 찾아볼 수 있다. 백부장이 하인의 중풍 병을 고쳐달라고 예

24) 김병현 (2019: p.113)

25) 조기웅 (1998: p.20-21)

26) 김용구 (2014: p.19)

수님을 찾아온 사건(마 5-13)에서 주인이 하인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의 생명을 존중한다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 밖에 부모가 자녀를 고쳐달라고 온 경우, 아버지가 간질병(뇌전증)이 든 아들을 고쳐달라고 하자 예수께서 치유해주신 내용 등도 있다. (마 17:14-18, 막 9:17-29 눅 9:37-43) 또 예수님은 장애를 입은 자를 천국 잔치에 초청하는 손님으로 비유한 사건(눅 14)을 통하여 사회에서 소외되고 불청객이었던 그들을 하나님의 귀빈으로 바꾸어 주신다. 이는 장애를 직접적으로 치유해주신 사건은 아니었지만, 장애인을 초대하시는 행위를 통해 비장애인의 영적 결핍을 지적하시고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시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sup>27)</sup>

이처럼 예수님은 소외된 자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셨는데 예수님께서서는 회당에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하시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구절(눅 4:16-19)을 선포하시는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sup>28)</sup> 하나님 나라는 사후세계만을 뜻하지 않는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과 눈으로 세상을 볼 때 이 세상과 교회는 여전히 죄악과 슬픔이 가득 차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를 만들길 소망하고 이미 만들고 계심을 알 수 있다. 해방의 과정에 동참하며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을 위해 헌신하고 개개인이 아닌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써갈 때 백향목과 같은 향기 나는 곳에 겨자씨와 같은 작은 우리를 품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

셋째, 앞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은 장애를 사용하시는 분이시다. 따라서 장애를 긍정적으로 보는 경우를 살펴보면 하나님은 날 때부터 눈먼 자들을 향해 그들의 죄에 원인이 있다고 하시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요한 복음 9:1~3) 따라서 이런 점을 미루어 보아 단순히 죄와 벌의 인과관계로 단정 짓고 단편적으로 장애의 정의를 내리는 것은 경계해야 하는 부분이다. 즉, 장애에 대한 개인적인 편견과 사회적 인식에 따라 장애인은 쉽게 소외의 대상으로 여겨질 수 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약한 자들을 통해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린도전서 1:27-28)고 하셨던 것처럼 소외당하는 자들의 마음에 공감하시고 그들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오히려 세상이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는 대상으로 만드실 것을 선포하고 계신다.

이처럼 신약성서에서는 장애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와 기독교적 정신이 잘 나타나 있다. 예수는 소외당한 자들에게 차가운 눈초리가 아닌 사랑의 손길을 내주었으며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27) 안교성 (2003: p.43)

28) 조기웅 (1998: p.36)

한 인간으로 존중하셨다. 예수는 그들에게 인격적 권리와 함께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동참하는 영적인 권리를 인정해 주셨을 뿐 아니라 장애인의 친구가 되어 그들을 사회에서 소외시키지 않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통합적 삶을 보여 준 것이다.<sup>29)</sup>

장애인에 대한 일반적 이해와 성경적 이해를 살펴보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어지기 위해 장애인 온라인 예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소외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야 함을 다시 한 번 확신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기존의 장애인 이해에 있어서 개선해야 할 점과 변화해야 할 점 또한 생각하면서 장애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

## 2. 온라인 장애인 예배 현황과 특징 및 개선점

### 1) 온라인 장애인 예배의 개념

김병석 박사는 “포스트 코로나에서는 기존 사이버 스페이스 공간 개념이 더욱 확장된다. 온라인과 인공지능(AI)과 만나면서, 가상현실·증강현실이 응용된 다채로운 예배 디자인이 자연스러워질 수 있다”며 “예배의 다양성은 초대교회부터 있어왔기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새롭게 수용되는 개념은 아니다. 예배의 다양한 형태의 가능성은, 형태가 변해도 본질과 기능은 변하지 않는다는 신학적인 확신 때문일 것”이라고 진단했다.<sup>30)</sup> 즉, 온라인 예배라는 개념은 코로나 이전에도 존재했던 개념이며 디지털 세상을 매개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온라인 예배와 대면 예배의 동시 진행은 불가피하게 되었고 교회는 포스트 코로나,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두 개의 예배 공간을 마련하는 데 힘써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장애인 온라인 예배란 온라인 예배의 참여자를 장애인으로 하여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소외되지 않고 신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온라인 장애인 예배의 한계도 물론 존재하지만 대면 예배에 비해 각 장애의 유형에 맞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들에게 하나님과의 만남에 제약을 두지 않을 수 있는 편리한 도구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코로나 이전에도 몸이 마비된 젊은이를 아이패드를 통해 교회의 회중석에 앉게 할 수 있는 일에 이르기기도 했다.<sup>31)</sup>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기술을 통하여 서로에게 쌓아왔던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무는 기회를 주셨는지도 모른다. 뉴욕타임즈의 교황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기술의 도움을 받아 우리는 함께 기도할 수 있고 함께 찬송할 수 있으며 주님이 우리에게

29) 김한호 (2010: p.49)

30) 크리스천투데이. “코로나 이전부터 예배 못 오는 장애인 등 고려했더라면...”.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43444>.

31) 안선희(2020: p.60)

게 주시는 자비로운 사랑을 함께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어떤 국경도 이 사랑의 나눔을 막을 수 없습니다.”<sup>32)</sup> 하나님의 사랑은 기술이라는 도구를 통해 비대면으로 인해 강제적으로 대면으로 만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만남을 가능케 하였으며 더 나아가 오히려 소외된 자들을 위한 더욱 편리한 방법을 제공해주고 있기도 한 것이다.

물론 가상의 교회 공동체가 실재하는지 혹은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던지는 학자들이 있다. 2004년 실행된 12주 동안의 ‘바보들의 교회’(Church of fools)실험에 따르면 가상 예배 가운데 예배 참여자들은 그들이 정말로 온라인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공동체를 경험했다고 주장하였다. 그 예배에 참석한 BBC 방송국의 한 기자는 다소 놀라며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 사람들은 함께 기도하고 있었고 이는 마치 그들이 같은 방에 서 있는 것처럼 실제였다. 오히려 그들이 여러 다른 나라들, 혹은 다른 마을들에 있다는 사실이 하찮은 문제로 보였다.” 이처럼 가상인 동시에 실제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온라인 예배는 더 이상 현실 공간에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이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 더 중요한 목적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마음으로서 함께 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 것이다.<sup>33)</sup>

장애를 가진 이들에게는 이런 부분들은 예전부터 문제가 아니기도 했다. 눈이 보이지 않지만, 음성 기술로 인해 함께 할 수 있고 귀가 들리지 않지만, 수어방송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받을 수 있다. 몸이 불편해서 교회에 직접 가지 못하더라도 방송으로 송출되는 예배를 가정에서 들으며 예배에 참여할 수 있다. 이처럼 각각의 장애로 인해 한 공간에 직접 가서 함께 있지는 못하더라도 실재하는 가상 공동체 안에서 “두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장소에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있느니라.”(마 18:20)는 확신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오네에 따르면 기독교 예배의 문제점으로서 기독교 예배는 주요 동력으로서 인간 행동을 지니치게 강조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관을 무시하는 행동이나 다름없다. 이런 현상을 추기경 라칭거는 자축(autocelebration) 즉, 교회가 스스로 거행한다는 용어로 표현했다.<sup>34)</sup> 즉, 공간적 근접성이 없지만, 시간적 동시성이 있는 예배라면 우리는 공동체성을 느낄 수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 없이 자신들의 기준을 만들어 예배를 규정하고 소외당하는 자들을 더 고립시킴으로써 예배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 ‘장애인 온라인 예배’란 얼굴을 마주하며 함께 할 수 없는 시대에 필연적인 예

32) 안선희 (2020: p100)

33) 안선희 (2020: p106) Jenkins, “Rituals and Pixels,” 105

34) 안선희 (2020: p114)

배의 한 공간으로서 물리적 공간 안에서의 근접성에만 의존한 것이 아닌 시간적 동시성으로 서로에게 공감하고 주목하며 하나의 목적을 가진 아름다운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장애인들을 통합해야 하는가 아니면 분리시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도 여러 의견이 나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연구의 〈대안적 예배 모델〉에서 더 중점으로 다루기로 하겠다.

## 2) 온라인 장애인 예배의 현황

코로나 19 이후 장애인 예배 유튜브<sup>35)</sup> 송출 통계다. 2020~2021년 반영하고 있는 교회를 대상으로 조사하였고 온라인예배는 직접 교회에 가서 대면으로 관찰조사를 진행한 것이 아닌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상의 예배를 관찰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예배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크게 두 가지로 예배의 형태가 나뉘었는데 비통합예배와 통합예배다. 장애 유형별로 분류하거나 장애인들끼리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 비통합예배, 장애 유형별로 환경을 제공해주는 동시에 비장애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통합예배, 추가적으로 통합예배 안에는 “장애인 주일”이라고 하여 교회의 온 성도가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장애 사역에 더욱 관심을 가지기 위해 매년 행사 형식으로 진행되는 일시적인 장애인 예배 형태가 있다. 본 현황은 현장에 가서 직접 조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석 비율과 참석하는 장애 유형을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예배의 진행, 구성, 특성을 위주로 예배를 관찰 조사하고 그에 따른 장단점을 분석할 수 있었다.

현재 유튜브로 온라인 장애인 예배를 송출하고 있는 교회는 지구촌교회 복지 선교부, 명성교회, 영광교회, 사랑의 교회 장애인 선교부, 선한목자온라인교회(장애인 주일), 밀알 선교단(사랑의 교실 장애인 예배), 남서울은혜교회(장애인 주일), 호산나교회(장애인 주일), 열린교회 사랑부(장애인 주일), 나성영락교회 Y.N.C.(장애인 주일), 일산은혜교회(장애인 주일), 여의도순복음교회(장애인대교구 온라인 수요일예배), 은평성결교회 고등부(장애인 주일), 김포사랑스러운 교회(장애인 주일), 주님의 영광교회(사랑부, 장애부, 영어예배), 은혜한인교회(발달장애인 주일예배)로 총 16개의 교회였으며 그중에서 지속적으로 비통합예배를 진행하고 있는 교회는 총 7개, 통합예배 장애인 주일로 일시적인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총 9개였다. 그 이외에는 예배는 아니지만, 장애인 예배를 섬기고 있는 교육자들, 교역자들을 위한 채널이 1개 있었다. 온라인 예배라는 특성상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진행하고 있는 장애인 온라인 예배도 존재했다.

35) Youtube(영어) : 구글이 서비스하는 동영상 공유 플랫폼이다. 위키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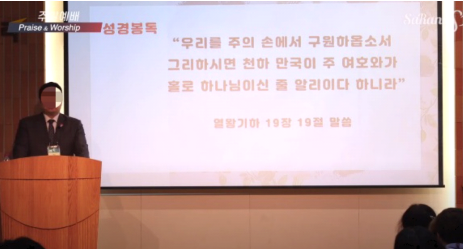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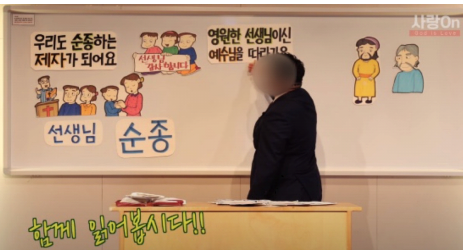
선행연구(한국장애인사역연구서 2012)에서 살펴본 현장 예배와 현 연구의 온라인 장애인 예배를 비교해봤을 때 온라인 장애인 예배를 진행하고 있는 교회는 현저히 수가 적다고 볼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현장 예배 12곳도 추천받아 조사가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교회가 장애인 예배를 운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에 비해 유튜브를 통해 지속적인 온라인 장애인 예배를 진행하고 있는 교회는 7개이므로 상대적으로 교회의 온라인 장애인 예배에 대한 관심이 적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예배에 관심을 두어야 하는 이유는 앞으로 전개될 위드 코로나 상황에서 온라인 예배는 필수적인 예배 형태가 될 것이며 더 나아가 코로나 상황과 관계없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예배에 있어서 예배 접근권과 관련하여 대면 예배보다 비대면 예배를 선호하고 편리함을 느끼는 장애인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드 코로나 시대에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가 병행되어 나아갈 전망으로 보았을 때 현장 예배만큼이나 온라인 장애인 예배에 대한 관심과 개선이 요구된다.

### 3) 장애인 예배의 형태와 특징 : 예배관찰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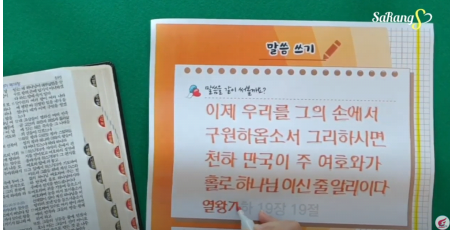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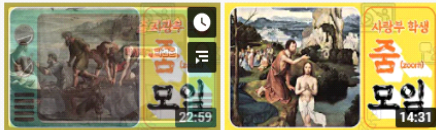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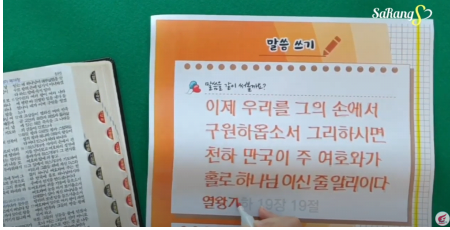
앞서 제시한 통계조사에 따라 장애인 온라인 예배를 보다 체계적인 구조화된 기준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구조적 분석을 위한 기준은 총 10개로 다음과 같다. 예배의 참여자 및 장애인 부서 구성, 예배 인도자, 예배 순서 구성 특징 및 진행 방법, 예배 시기, 예배 장소, 정형화와 표준화의 정도, 반복성의 정도, 집합성의 정도, 감정성의 정도, 개방성의 정도이다. 온라인 장애인 예배를 구체적으로 조사하기에 모든 교회의 예배를 분석하는 것보다 통합예배, 비통합예배로 대표되는 예배를 분석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대표적인 교회 두 교회를 집중적으로 비교 관찰 및 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표 2〉 관찰연구교회 장애인온라인 예배의 일반적 특성

| 교회                   | M교회                                                                                                                                                                                                                                                                                                                                                                     | S교회                                                                                                                                                                                                                                                                                                                                                                                                                                     |
|----------------------|-------------------------------------------------------------------------------------------------------------------------------------------------------------------------------------------------------------------------------------------------------------------------------------------------------------------------------------------------------------------------|-----------------------------------------------------------------------------------------------------------------------------------------------------------------------------------------------------------------------------------------------------------------------------------------------------------------------------------------------------------------------------------------------------------------------------------------|
| 예배의 참여자 및 장애인 부서 구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합예배로서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예배를 드린다. 하지만 매주 통합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니며 한달에 한번 통합 예배(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예배)를 실시한다.</li> <li>- 장애인 부서는 (발달장애인), 농아부, 사랑지체부(지체장애인)로 이루어져 있다.</li> <li>- 그 밖에는 일 년에 1~2회씩 통합 캠프를 진행한다.</li> <li>- 평일에는 사랑 학교를 운영하여 장애인들의 문화생활 지원한다.</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통합예배로서 장애인들과 비장애인이 함께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장애인 주일을 지정하여 특별 장애인 주간에 통합 예배를 실시하기도 한다.</li> <li>- 장애인 부서는 사랑부와 소망부로 이루어져 있다.</li> <li>1) 사랑부: 사랑1부(18세 이상의 발달장애 성인들), 2부(14~17세의 발달장애 학생들), 3부(미취학 아동~초등학생까지의 발달장애 아동들)</li> <li>2) 소망부: 청각 및 지체장애인 사역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수화통역을 통해 청각 장애인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역을 한다. 수화 교실에서 배출된 봉사자들이 통역 봉사를 하며 주일3부예배와 수요찬양예배때 본당 1층 남측 청각 장애인석에서 수화통역 서비스를 제공한다.</li> </ul> |
| 예배 인도자               |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예배를 구성해 나간다.                                                                                                                                                                                                                                                                                                                                            | 비장애인들이 주를 이루어 예배를 구성해 나간다.                                                                                                                                                                                                                                                                                                                                                                                                              |
| 예배 순서, 구성, 특징 및 진행방법 | <p>(1) 찬양</p> <div data-bbox="312 1123 778 1373">  <p>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주소서</p> </div> <div data-bbox="778 1123 1248 1373">  <p>주인예배 Praise &amp; Worship Saliang<br/>내가 가는 길을 걸음음 평탄하게 하소서</p> </div> |                                                                                                                                                                                                                                                                                                                                                                                                                                         |
|                      | 찬양 인도자 한 명과 두 명의 비장애인, 한 명의 장애인이 함께 율동을 하며 찬양한다.                                                                                                                                                                                                                                                                                                                        | 비장애인 찬양 인도자 한 명이 율동과 함께 찬양을 인도한다.                                                                                                                                                                                                                                                                                                                                                                                                       |

| 교회                           | M교회                                                                                 | S교회                                                                                                                                                       |
|------------------------------|-------------------------------------------------------------------------------------|-----------------------------------------------------------------------------------------------------------------------------------------------------------|
| 예배의<br>참여자 및<br>장애인 부서<br>구성 | (2) 기도                                                                              |                                                                                                                                                           |
|                              |    |                                                                         |
|                              | 교사가 기도를 준비하고 대표기도를 한다.                                                              | 찬양이 끝난 후 찬양 인도자가 기도까지 이어<br>서 대표기도를 한다.                                                                                                                   |
| 예배 순서,<br>구성, 특징<br>및 진행방법   | (3) 성경봉독                                                                            |                                                                                                                                                           |
|                              |   |                                                                        |
|                              | 준비된 특송을 장애학생이 주체적으로 부른다.<br>(찬양 제목: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 “다 같이” 라고 말한 후 강단 앞에서는 사역자<br>혼자 봉독하며 강단 밑에서는 장애인들 또한<br>성경을 봉독한다.                                                                                        |
|                              | (4) 특송                                                                              | (4) 말씀                                                                                                                                                    |
|                              |  |                                                                       |
|                              | 준비된 특송을 장애학생이 주체적으로 부른다.<br>(찬양 제목: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 말씀 내용을 전달할 경우 발달장애인의 학습수<br>준을 고려하여 그림과 영상을 사용하는 등 다<br>양한 시각적 자료들을 이용한다. 매주 예배 마<br>다 자막을 규칙적으로 달아주지는 않는다.<br>성경: 열왕기하 19장 19절 (히스기야의 기도)<br>(5/16일자 예배) |

| 교회                         | M교회                                                                                                                                                     | S교회                                                                                  |
|----------------------------|---------------------------------------------------------------------------------------------------------------------------------------------------------|--------------------------------------------------------------------------------------|
| 예배 순서,<br>구성, 특징<br>및 진행방법 | (5) 말씀                                                                                                                                                  | (5) 찬양                                                                               |
|                            |                                                                        |    |
|                            | 시각적 자료는 이용하지 않고 스토리텔링식으로 말씀을 전달하며 자막 제공을 하지 않는다. 말씀 내용을 아이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교 중간에 전도사의 경험적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준다. 성경: 빌립보서 2장 5~8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5/16일자 예배) | 앞의 찬양 진행과 동일하며 비장애인 찬양 인도자가 찬양을 인도한다.                                                |
|                            | (6) 찬양                                                                                                                                                  | (6) 축도                                                                               |
|                            |                                                                       |   |
|                            | 전도사가 말씀 선포 후 직접 찬양을 이어 부르신다.                                                                                                                            | 목사가 강단에서 축도를 하신다. 축도를 할 때는 자막을 삽입해준다.                                                |
|                            | (7) 기도                                                                                                                                                  | (7) 예배 후                                                                             |
|                            |                                                                      |  |
|                            | 기도 또한 전도사가 찬양에 이어서 바로 한다.                                                                                                                               | 광고 시간을 따로 갖지 않으며 말씀 암송 시간을 목사님과 함께 갖는다.                                              |

| 교회                   | M교회                                                                                                                                                                                                                                                     | S교회                                                                                                                                                                    |
|----------------------|---------------------------------------------------------------------------------------------------------------------------------------------------------------------------------------------------------------------------------------------------------|------------------------------------------------------------------------------------------------------------------------------------------------------------------------|
| 예배 순서, 구성, 특징 및 진행방법 | <p>(8) 축도</p>                                                                                                                                                          |                                                                                      |
|                      | <p>목사가 강단에서 축도를 한다.</p>                                                                                                                                                                                                                                 | <p>그 후 암송한 말씀의 뜻을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서 설명해주는 시간을 갖는다.</p>                                                                                                                 |
|                      | <p>(9) 광고</p>                                                                                                                                                          |                                                                                      |
|                      | <p>부장집사가 광고를 진행하며 기도하는 것을 강조하고 은혜 받을 것을 축복한다.</p>                                                                                                                                                                                                       | <p>마지막에는 말씀을 직접 써보는 시간으로 마무리하며 말씀에 대한 이해 정도를 높일 수 있는 학습적인 활동을 한다. 말씀 노트는 예배 사전에 미리 배부해주며 매주 말씀 쓰기를 진행하고 있다. 헌금 주일과 같은 행사가 있는 주일에는 헌금 봉투를 직접 만들어보는 만들기 시간을 가지기도 한다.</p> |
|                      | <p>(10) 온라인 사랑 학교</p>  <p>사랑부 학생 줌(zoom)모임 [part.6] 22:59<br/>명성교회 사랑부<br/>조회수 없음 • 4시간 전</p> <p>사랑부 학생 줌(zoom)모임 [part.5] 14:31<br/>명성교회 사랑부<br/>조회수 41회 • 3일 전</p> |                                                                                    |
|                      | <p>예배 후 바로 모임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 시간을 내어 토요 사랑 학교 활동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토요 사랑학교에서는 다양한 문화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활동 또한 온라인으로 진행하도록 되어 있다. 이 활동 외에도 zoom을 이용하여 말씀을 나누고 알려주는 모임을 진행 중이다.</p>                                                                                | <p>마지막에는 말씀을 직접 써보는 시간으로 마무리하며 말씀에 대한 이해 정도를 높일 수 있는 학습적인 활동을 한다. 말씀 노트는 예배 사전에 미리 배부해주며 매주 말씀 쓰기를 진행하고 있다. 헌금 주일과 같은 행사가 있는 주일에는 헌금 봉투를 직접 만들어보는 만들기 시간을 가지기도 한다.</p> |

| 교회           | M교회                                                                                                                                                                                                                                            | S교회                                                                                                                                                                                                                                                                            |
|--------------|------------------------------------------------------------------------------------------------------------------------------------------------------------------------------------------------------------------------------------------------|--------------------------------------------------------------------------------------------------------------------------------------------------------------------------------------------------------------------------------------------------------------------------------|
| 예배 시기        | 코로나 이후~2021. 11                                                                                                                                                                                                                                | 코로나 이후~2021. 11                                                                                                                                                                                                                                                                |
| 예배 장소        | M교회 교육관, 온라인 예배 (실시간 송출)                                                                                                                                                                                                                       | S교회 베드로 홀1 온라인 예배 (녹화)                                                                                                                                                                                                                                                         |
| 정형화와 표준화의 정도 | 예배의 순서와 절차 형식이 정해져 있으며 매주 같은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정형화와 표준화의 정도가 높다.                                                                                                                                                                                | 약간의 변경 사항은 있더라도 예배의 순서와 절차 형식이 정해져 있으며 매주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기에 정형화와 표준화 정도가 높다.                                                                                                                                                                                                       |
| 반복 정도        | 매주 규칙적으로 예배를 실시간 송출하고 있다.                                                                                                                                                                                                                      | 매주 현장 예배의 녹화 분을 규칙적으로 업로드 하고 있다.                                                                                                                                                                                                                                               |
| 집합성의 정도      | 말씀 내용에 대한 아이들의 이해 정도가 어느 정도일 지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사역자가 말씀을 전달할 때 학습 수준에 맞는 단어들을 고려하여 사용하며 동영상 자료를 이용하여 발달장애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무엇보다 장애인들의 직접적인 참여 형식의 예배이기 때문에 그들의 집중도와 예배에 대한 개인적 인지가 높을 것이라고 추측된다. 따라서 장애인들의 참여를 배제한 예배보다는 상대적으로 집합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한다. | 그들의 학습 능력에 맞춰 예배를 진행해 나가지만 장애인들의 직접적인 예배의 참여율이 낮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예배에 대한 인지도가 낮을 수 있다. 하지만 명성 교회에 비해 말씀을 전달할 시 다양한 시각적 자료를 많이 활용하고 있으며 예배 후에 성경을 함께 암송하고 말씀 쓰기 시간을 따로 가짐으로 주체적인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추측된다. 따라서 예배에 직접적 참여율은 낮지만 예배에 대한 이해를 돕는 다른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기에 집합성이 낮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한다. |
| 감정성의 정도      | 예배자들이 감정을 깊이 공유할 수 있도록 예배 참여율을 높이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예배 이외에도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충분히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기 때문에 감정을 공유하는 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한다.                                                                                                                          | 말씀 이해에 대한 학습적인 부분은 비중이 크지만 예배 이외의 춤 모임이나 활동을 통해 서로의 생각과 신앙의 이야기를 깊이 나누는 장이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감정을 깊이 공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정확히 알 수 없다.                                                                                                                                                  |
| 개방성의 정도      |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나 예배 참여자를 발달장애인으로 국한시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장애 유형의 아이들이 참여하기에는 제한적이다.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경우 발달장애인 아이가 주체적으로 예배에 참여하기에는 접근성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이 필요하다.                                                                |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나 통합 예배가 아니기에 예배 참여자가 발달장애인에 국한되어 있다. 따라서 다른 장애 유형의 학생들이 참여하기에는 학습능력의 정도와 장애 유형이 차이가 있기에 함께 예배를 드리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온라인 예배일 경우에 주체적으로 발달장애인 아동이 예배에 참여하기에는 접근성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

### 3) 장애인 온라인 예배의 개선점

첫째, 장애인 온라인 예배를 조사 분석해본 결과 가장 큰 문제점은 장애인들의 주체성이 결여된다는 점이다. 앞서 살펴본 두 교회의 예배 형태를 살펴보았을 때 M 교회에서는 장애인의 예배 참여 정도가 S 교회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예배란 공동체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드리고 그 과정 가운데 함께 의식을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예배 진행 과정 가운데 장애인을 배제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차별의 부분이 될 수 있다. 말씀을 전하고 기독교적 교육을 진행하는 것 외에 교역자와 교육자가 해야 하는 것은 장애인이 예배를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는 일이다. 그들이 주체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신을 향한 마음을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도록 찬양, 기도 등의 예배 순서에 참여시키는 것이 진정한 장애인 온라인 예배를 정의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장애 유형에 따른 예배의 전문성이 다소 부족하며 교육자들의 장애의 이해정도도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장애 유형의 특성으로 보았을 때 시각장애나 청각장애를 위한 기술(자막, 수어방송)을 장애인 예배에 통합시키지 않은 것은 충분히 통합 예배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장애인 예배로서 어떤 사람은 지적장애와 다른 유형의 장애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다른 유형의 장애인이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온라인 장애인 예배의 장애 유형의 통합 정도가 확장되어야 한다. 비장애인 예배에 기본적으로 다른 유형의 장애인들을 고려하듯이 온라인 장애인 예배 또한 다른 유형의 장애를 고려하고 확장하여 예배를 구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교역자들 또한 장애인들이 설교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감각적 도구를 사용하여 말씀을 전달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더 나아가 장애에 대한 이해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 장애의 유형은 다양한 것뿐만 아니라 각 개인에 따라 같은 유형의 장애라고 하더라도 세밀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보다 더 잘 이해하고 장애인 예배의 전문성을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셋째, 온라인 장애인 예배 이외에 비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이 부족하다. 교회는 한 공동체로서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품어줄 수 있는 활동을 하는 곳이다. 따라서 장애인들의 개별적 노력, 장애인 예배 부서만의 개선을 통해서 이러한 공동체적 정신을 실현시키는 것은 불완전하다고 볼 수 있다. 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전교인이 교육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먼저, 장애인 온라인 예배는 부모 교육,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 앞서 코로나 이후 현장 예배가 불가능해지자 가장 고충을 호소하는 그룹은 가정이었다. 장애인들에게 교회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고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공

간이었기 때문에 온라인 비대면 상황에서 이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예배 후에 진행되는 다양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가정에서의 부모의 역할이 요구된다. M 교회에서는 예배 이후에 줌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격주로 주제를 변경하며 장애인들이 온라인상에서도 소통하고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들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 활동 또한 가정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녀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옆에서 보조해줄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 이 뿐만 아니라 앞서 통계자료에 따르면 비대면 상황 가운데 부모님들의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진 것으로 미루어 보아 줌을 통해 부모 교육과 부모 모임 또한 병행하며 이들의 아픔이나 힘든 상황들을 공유하고 말씀 공부, 장애에 대한 이해 등을 공부할 수 있는 온라인상의 장을 마련해주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또한 교회 내에 다른 공동체들, 비장애인에게도 장애인 예배가 있다는 것을 알림으로써 공동체에 대한 관심의 정도를 높일 수 있다. 장애에 대한 이해, 성경에 나타난 장애, 장애인을 향한 에티켓,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바라보는 장애 이해 등을 교육함으로써 장애인의 문제가 장애인 개인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알릴 수 있다. 비장애인이라는 것은 장애인이 아니라는 뜻보다도 모든 사람이 예비 장애인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밖, 일상생활에서도 마주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봤을 때 교회 내의 교육과 장애인 예배의 존재를 알고 장애인식 교육을 받는다면 장애인을 만나는 실제상황에서 차별하지 않고 그들을 동등하게 대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나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최고의 계명으로 언급하셨던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웃인 장애인 또한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자세일 것이다.

넷째, 코로나 이후 예배는 디지털 매체를 사용하는 예배로서 더욱 비선형적인 예배의 특성이 요구된다. 특히 장애인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 온라인 예배와 다양성이 공존하며 그 속에 고유성을 사랑으로 품어야 하는 교회는 주체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예배학에서는 리조메틱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리조메틱의 리즘(Rhizome)은 본래 식물학에서 땅속줄기 식물을 말하며 수평적으로 여러 갈래로 뻗어 나가는 새로운 개체를 상징한다. 따라서 자유롭고 유연한 복수성의 체계를 뜻하며 시작과 끝을 분리하는 이분법적 구조에서 벗어나 유동적이고 수평적인 구조를 의미한다. 철학자 들뢰즈(Deleuze 1925-1995)와 가타리(Guattari 1930-1992)는 리즘의 6가지 성질을 주장하는데, 그중에서는 연관성(connection), 이질성(heterogeneity), 다양성(multiplicity) 등이 있으며 이는 내재적이고 배척적이지 않은 모델이기 때문에 각각 고유한 성질을 가진 다양체로서 존재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장애인 온라인 예배는 다양함 속에서도 고유성을 유지하며 수평적인 구조가 필요하다.

하지만 관찰 조사한 결과 예배의 특징을 보면 아직 리즘적 특성을 띠고 있는 부분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여전히 장애인을 봉사의 대상, 도움을 받아야 하는 약자의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수평적인 구조를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물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참여형 예배를 통해 다양성과 수평성을 추구하려는 시도와 인지적인 측면에서 과거보다는 상대적으로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잔존하는 장애의 벽을 허물로 다양성을 존중하며 비선형적인 예배 특징을 반영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로 남아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장애인 예배는 소통적인 측면보다 교육적 측면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는 경향이 있다. 그들을 오직 교육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앞서 제시한 구약의 장애 이해에서 본 무능력한 장애 이해의 관점이 전제되어 있기도 하다. 발달 장애가 지능 수준이 본 연령에 비해 낮아 학습적인 부분에서 발달이 어려운 특징이 있지만, 학습발달 측면뿐만 아니라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사회적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측면과 관련된 기준이 감정성의 정도인데 S 교회는 말씀을 배우고 이해하는 학습적인 부분은 신경을 많이 썼지만 줌 모임과 그 외의 공동체가 소통할 수 있는 장이 다소 부족하여 어떤 감정을 공유하고 있는지 어려웠다. 따라서 예배는 이성적인 학습적 측면과 아울러 정서와 감정을 나누는 부분도 포함되기 때문에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드는 것이 요구된다.

#### 4. 온라인 장애인 예배 발전방안 : 환경적 지원방안 및 이론적 대안 예배 모델

##### 1) 환경적 지원방안

###### (1) 각 장애 유형별 온라인 예배 지원 방안

앞서 개선점을 바탕으로 장애라는 고유성을 고려한 환경적 자원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장애독특성을 고려한 지원방안을 장애 유형에 따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시각장애인들은 그들이 잘 들을 수 있도록 음향 효과에 신경을 써야 하며 설교 말씀이나 찬양에 있어서 속도, 점자 성경책 혹은 360한소네로 성경 말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PDF 파일을 마련해줘야 한다. 실시간 예배의 속도가 상대적으로 너무 빠른 예배자들에게는 녹화된 영상과 음성을 제공하며 예배 후 피드백과 자신들의 반응을 나눌 수 있는 창구도 제공해야 한다.

청각장애인의 경우에는 수어나 시각적인 자료를 이용하여 예배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한다. 그림으로 자신의 생각을 나누게 될 경우 그림 재료를 준비해 놓고 예배 중에 크

36) 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

리에이티브<sup>37)</sup> 저널리즘을 하게하고 예배 후 원하는 경우 나누도록 하면 좋다.

지체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예배 순서에 있어서 동작해야 하는 부분 예를 들어 앉았다가 일어나는 부분 혹은 울동을 역동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 입을 크게 하여 기도나 찬양을 하는 부분에서 배려를 해줘야 한다. 또한 세부적으로 장애의 정도에 따라 인터페이스를 적절하게 지원해야 한다. 예를 들면 경추 장애의 경우 손을 쓰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마우스 키보드 등의 인터페이스를 통한 접속이 곤란한 경우가 있다. 이 같은 경우에는 눈 깜박임을 통해 온라인 접속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하나의 지원 방안이 될 수 있다. 그 밖의 장애 유형을 가진 장애인들을 위한 부분은 앞으로 더 연구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결론적으로 온라인 오프라인 예배 모두,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터페이스 기기 및 가구, 공간 등에 있어서 유니버설 디자인<sup>38)</sup>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기존 오프라인 예배를 진행할 때 건물 곳곳에 장애인들을 위한 안내 표지판, 편의 시설들이 구비되어 있었다면 그것을 이제는 온라인으로 가져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과정에서 조금 더 편리하고 수월할 수 있도록 ‘픽토그램’을 사용하여 온라인 예배를 안내하는 방법, 온라인 예배 시 긴급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비상 버튼을 프로그램에 추가하는 방법 등이 있다. 이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사용하기에 어려움을 겪는 일부 고령층들에게도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하는 교회의 세심한 배려와 관심의 부분이 될 수 있다.

그 이외에도 부모교육, 사역자와 교육자를 위한 교육, 비장애인 성도들을 위한 장애 인식 교육이 요구된다. 사역자를 위한 교육으로는 앞서 유튜브 방송을 조사해본 결과 온라인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채널도 존재했다. 코로나 이후 디지털 공간이 모든 연령에게 익숙해진 만큼 온라인 매체를 통해 더 수월하고 쉽게 배울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된다면 통합 예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2) 디지털 트랜스 포메이션(DX)을 통한 하이브리드 예배

코로나19로 가속화된 디지털 트랜스 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 이하 DX)은 디지털 기술을 사회 전반에 적용하여 전통적인 사회 구조를 혁신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는 사회 전반에 걸쳐 문명사적 전환을 초래하고 있으며 공적 영역에서의 DX는 정부와 국가기관을 중심으로 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사적 영역에서는 산업의 구조적 변화와 비즈니스 변화를 견인하고 있다.

37) 글, 그림, 색상 형상을 조합하여 배우고 느낀 것을 표현하는 것

38) 누구나 손쉽게 쓸 수 있는 제품 및 사용 환경을 만드는 디자인(위키백과)

따라서 이런 시대의 흐름에 맞춰 조 목사는 “한국 교회는 ‘시대’와 ‘세대’에 맞는 목회전략과 새로운 교회의 모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 후 제시한 새로운 예배 지원 방안은 ‘하이브리드 교회’다. 하이브리드 교회란 모든 사람들을 포함할 수 있는 장소(place)를 말한다. 이는 현 연구 대상인 온라인 장애인 예배에 물리적으로 필요한 예배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장애인과 몸이 좋지 않은 사람들,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타인과의 만남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주일에 쉬지 못하고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 등 더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초청하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회는 DX를 통해 하이브리드 교회를 추진할 수 있다. 하이브리드 교회란 모든 것을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뜻하지 않으며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성도들에게 성령의 임재를 경험케 하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참여시킴과 그리스도의 몸에 한 지체로서 기능하게 한다. 디지털과 오프라인이 서로 만나는 곳에 하이브리드 교회가 존재한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이미 성도들은 교회에 오는 습관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코로나가 종식되더라도 이 변화된 환경에 노출된 기간을 고려해보았을 때 교회 건물 안을 오히려 낯설게 느끼는 성도들도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따라서 하이브리드 교회는 디지털화된 사회를 위한 교회의 새로운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하이브리드 교회를 위해 그가 내세운 목회전략 중 몇 가지를 제시하자면 첫째, 오프라인에서 경험할 수 있는 실재감을 증폭시키는 것이다. 온라인 장애인 예배에서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들이 예배를 오프라인에서도 실재감 있게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실재감을 느낄 수 있도록 시각 중심의 예배에서 벗어나 오감을 통해 경험하는 예배를 기획하고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온라인 소그룹을 만드는 것이다. 앞서 M 예배에서도 예배 이후에 줌(zoom)을 이용한 그룹모임과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공동체의 결집력을 증진시키고 소통의 장을 제공했었다. 이처럼 소그룹 활동, 예배 이외의 공동체 활동은 실질적으로 교인들에게 동기부여를 제공하며 자발적인 예배 참여와 공동체 의식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한다. 셋째, ‘스토리텔링(story telling)’에서 ‘스토리리빙(story-living)’으로 이끌어야 한다. 스토리텔링은 이미 구축된 세계관 속에서 일방적으로 청중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하이브리드 교회는 교인들이 말씀을 경험하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도록 만드는 ‘스토리리빙’으로 이끌어야 한다. 이는 온라인 예배 가운데 장애인들의 주체성과 참여성을 이끌어줄 수 있는 목회 전략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는 일방적이고 수직적인 전달이 아니라 양방향적이고 수평적 소통을 통하여 그들이 예배에 참여하고 그 예배를 삶으로 적용시켜 주체적인 예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전문 인력을 개발하는 것을 강조하며 동시에 교회의 본질인 복음을 유통하는 것을 강조하며 급변하는 사회 속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을 역설했다.<sup>39)</sup>

## 2) 이론적 대안 예배 모델

### (1) 참여적 예배의 중요성

참여적 예배란 예배의 회중인 평신도들이 예배를 함께 구성해 나가는 것이다. 즉, 예배 공동체가 민주적이고 평등해야 함을 강조하며 참여자 자신이 주체가 될 수 있는 예배를 만드는 것이다. 예배는 함께 무언가를 해나가는 것이며 억제로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소외당하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예배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장애인 예배가 나아갈 방향성 중 하나로 참여적 예배가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위의 온라인 예배를 분석해보면서도 알 수 있었지만, 장애인들의 참여율이 낮은 온라인 예배를 종종 볼 수 있다. 장애인 예배라는 지칭을 사용하면서도 예배에서 주된 역할은 특히 예배 인도자와 비장애인에 의해서 좌우되고 있다는 사실과 예배의 순서만 보았을 때도 예배 진행의 순서들이 비장애인들 위주로 진행되어 예배에 참여한 장애인의 역할이 사라지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예를 들어, 찬송을 부르는 시간에도 주보에는 “다 같이”라고 되어 있음에도 찬양인도자 한 사람만이 강단의 마이크를 독점한다.

따라서 장애인 예배를 시행하고 있는 교회는 참여적 예배를 추구하여 장애인들에 대한 평등 의식을 예배 자체에 반영해야 한다. 성경에서 중시하는 공동 의식을 실천하며 모두 다른 모습을 하고 있지만,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그 속에서 또 서로를 위한 배려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

### (2) 비차별적 언어 사용과 말씀 주제의 다양성

말씀을 전달하는 부분에서도 유의할 점은 비차별적인 단어를 신경 써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차별적 언어(inclusive language)란 교회 안의 여성과 젊은이뿐 아니라 소수자, 주변인을 배제하지 않기 위해 사용되는 바른 언어, 서구 언어권에서 처음 제기된 예배 언어의 문제다.

장애인 통합예배에서는 이런 소통 방식도 비차별적 언어의 예로 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은” 이라 할 때는 청각적인 소통도 제공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것은”이라 할 때는 시각적인 자료도 제공한다. 손을 들거나 무릎 꿇을 것을 제안할 때는 “몸이 불편하지 않은 분들” 이란 말을 덧붙인다. 또한, 장애인을 비하하는 발언 중 병신이나 절름발이와 같은 언어를 주의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다.<sup>40)</sup>

39) 조정실,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시대의 하이브리드(Hybrid)목회전략, <http://www.dangdang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6216>

또한 어떤 교회들은 장애인 주일이라고 하여 일회성으로 장애인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있다. 매년 4월 셋째 주일을 장애인 주일로 정하여 이 주간에 장애인을 생각하는 기간으로 장애인 인식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교육한다.<sup>41)</sup> 이렇게 교회 내부적으로 교육할 뿐만 아니라 교회와 지역 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중 필요한 사람들에게 각종 보조기구나 생필품들을 제공하기도 하며 직접 찾아가 교회로 초대하기도 한다.

물론 장애인 주일이라는 날을 설정하여 그 기간만큼이라도 집중적으로 약자를 생각하고 교육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에 효과적일 것이다. 하지만 한편으로 하나의 일회성 행사로 그친다면 그 또한 차별적인 대우, 차별적 언어가 될 수 있다. 또한 장애인 주일에는 장애인을 주제로 하는 말씀들을 위주로 전달을 하지만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을 높일 수 있다. 장애인들이 예배의 대상은 아니다. 그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이며 비장애인들과 같은 고민을 안고 살아갈 수 있다. 그들의 상황에 맞는 말씀을 전달하는 것도 물론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먼저다.

### (3) 축제와 놀이, 퍼포먼스적 예배

의례의 기본 전제는 공현전(co-presence)인데, 즉 ‘한 공간에 함께 있음’을 전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위드 코로나 시대에는 한 공간이 시간적 공간으로 해석될 수 있어야 한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이게 되면 그들의 근접성으로 인해 화학작용이 발생하며 순간적으로 예기치 못한 감정이 고양된다. 술라이어마허는 그의 저서 「실천신학」에서 축제와 예배를 비교하여 언급한다. 감정이 표출된 순간 표출된 감정은 각각의 다른 감정들과 서로 공명한다. 따라서 앞서 관찰 조사의 기준에서 살펴본 감정성의 정도가 중요한 이유가 이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다. 예배에 참여한 사람들은 서로 공명하는 감정을 통해 집합적 열광을 경험하여 공통된 전통과 신념을 다시 불러일으키면서 그것을 기초로 ‘우리의 의식’과 ‘일체감’을 형성한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공현전이 형성된 집합의식을 통해 일시적인 의례가 아닌 일성을 살아갈 때의 원동력이 되게끔 한다. 즉, 한곳에 모인 집합체가 공통된 가치를 각자의 방식으로 공유하면서 초월적이고 도덕적인 인간으로 새롭게 탄생하게 된다.<sup>42)</sup> 즉, 우리는 이러한 집합의식을 물리적 공간이 아닌 온라인 공간에서 실현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야 한다. 감정의 고양을 통해 함께 하는 사람들의 유대감과 동시에 각각의 정체성 또한 강화시켜줘야 한다. 이러

40) 김재우. 온라인 예배를 위한 제안. [http://online.anointing.co.kr/bbs/board.php?bo\\_table=article&wr\\_id=7](http://online.anointing.co.kr/bbs/board.php?bo_table=article&wr_id=7)

41) 김정희 (2003 p.35-36)

42) 안선희 (2018 p.41)

한 것을 뒤르캠 주의에 따르면 “정체성 확인과 개인을 공동체로 통합시키는 것”이라고 말한다.

장애인들이 소수이지만 그들을 위한 예배를 마련해줌으로 의례를 통해 서로의 뜻을 공유하고 유대감을 가지며 나아가 집합의식을 가지게 된다. 또한 통합예배로 해석하자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벽을 허물고 서로의 특성을 공유하며 수평적인 관계로서의 인지를 통해 집합의식을 가질 수 있다. 여기서 온라인 예배의 역할이란 그들의 이러한 의식들을 강화하고 창출하는 증폭기에 비유될 수 있다. 그런 과정 가운데 개인은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거나 혹은 개인이 집합체에 통합됨으로 소속감을 느끼는 사건이 일어난다. 더 나아가 그 과정에서 집단적 ‘치유’가 일어난다고도 말할 수 있다.<sup>43)</sup>

또한 이렇게 장애인들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예배를 하나로 생각하는 인식이 필요하다. 장애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예배는 무엇일지 고민해보았을 때 술라이어마허가 말했던 축제로서의 예배와 과르디니의 놀이로서의 예배가 떠올랐다. 예배로부터 무엇을 학습하기보다 예배 자체가 목적이며 일상으로부터 잠시 단절하여 그 속에서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모두가 다 한 형제, 자매인 듯 생각하면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예배에 가깝지 않을까.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자발적이고 자기 발견을 가능하게 했는지가 좋은 예배의 판단 기준이다. 따라서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자유로운 놀이이자 축제라고 볼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구술 언어가 아니어도 퍼포먼스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의례와 퍼포먼스, 가정법 문화라고 하는데 예배 안이 마치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는 것 같은 놀이라는 것이다. 터너는 의례를 퍼포먼스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고 퍼포먼스를 수행하는 것은 곧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라고 말한다.<sup>44)</sup> 이와 같은 퍼포먼스 이론은 문화를 텍스트가 아닌 ‘행위’로 보는데 즉, 참여하는 이들의 행위를 이해하며 그들의 행위를 강조한다. 즉, 퍼포먼스는 텍스트가 아니라 실행(practice)과 사건(events), 행위(action)로서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행위자를 공동참여자나 행위의 작가로도 보기 때문에 퍼포먼스는 참여적이며 상호적이다.

앞서 대안적 예배로 언급하였던 참여적 예배와도 일맥상통한 퍼포먼스적 예배 형태는 이처럼 참여를 강조하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예배에 참여했던 관객의 입장이 아닌 적극적으로 자신의 퍼포먼스를 수행하는 것을 강조한다. 즉, 예배라는 퍼포먼스를 수행하는 동안 모두가 능동적인 공급자가 될 수 있다. 더 나아가 퍼포먼스적 예배는 이전의 무대예술 등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 집단의 권력 구조를 허물고 구성원 모두가 함께 만들어내는 과정에 집중하는 형태이다.

43) 안선희 (2018: p43)

44) 박희봉, 이기중, 김명준, Ibid., 96.

또한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하르트만(Hartmann)의 예배학 이론에서 알 수 있는데 그는 “예배극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인들에게 전하고 하나님을 향한 교인들의 마음과 기원을 하나님께 중재한다.”고 말했다.<sup>45)</sup> 이런 면에서 퍼포먼스적 예배가 가지는 의의는 협동적인 상호행위로서 수평적인 장애인 온라인 예배의 대안적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위계질서가 엄격한 세상 속에서 장애인은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적 눈초리를 받아야 하며 소외를 당하며 살아간다. 하지만 예배는 하나님 나라가 마치 이루어진 듯 선취하는 놀이와 퍼포먼스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 자녀로서 모두가 같은 위치에 있으며 함께 어울려서 역할을 나누지 않고 같은 식탁에서 먹고 마실 수 있는 것, 그런 예배와 세상이 하나님 나라이며 하나의 대안적인 삶의 방식이 될 수 있는 것을 깨닫게 한다.

퍼포먼스 모델을 제시했던 빅터 터너는 총체적 체험과 리허설의 중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는데 코로나 이후 온라인 예배의 강점은 생활 종교로 변화되고 있는 기독교의 특성에 맞추어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이동성을 제공하고 생활 속에서의 예배를 이어갈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는 점이다. 즉,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 또한 생활 예배, 즉 주일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닌 그들의 생활 속에서 말씀 생활과 기독교적 가치관이 이어지는 것을 목표로 살아간다. 그들의 삶 자체가 예배인 것이다. 이에 대해 빅터 터너의 총체적 체험과 리허설 개념은 퍼포먼스와 함께 생활 예배와 타인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준다.

터너에게 퍼포먼스란 자기 자신을 포함한 사회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장치이다. 즉, 퍼포먼스를 통하여 타인의 입장을 체험해 보면서 서로의 상황을 경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다. 따라서 온라인 장애인 예배가 퍼포먼스적 예배가 된다면 그 속에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차별적인 시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다. 또한 세크너는 예배를 리허설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 나라를 미리 앞당겨서 예배 가운데 체험하는 것을 의미하고 리허설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의 동행을 연습하고 이것을 삶속에서도 지속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앞으로의 온라인 예배는 더욱이 그들의 삶 속에서 예배를 지속하고 하나님 나라의 퍼포먼스를 계속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예배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sup>46)</sup>

이런 이론적 설명들을 실제 교회 프로그램에 적용하여 앞서 관찰연구에서 제시했던 교회에서의 프로그램 이외에 온라인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다. 또한 각 장애에 요구되는 적합한 기독교 교육 서비스 혹은 문화 활동을 기획하여 예배의 한 활동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예배는 의식적인 형태뿐만 아니라 놀이로서의 예배로서 공동체와의 소통, 놀이 과정 가운데에도

45) 조기웅 (1998 p.43)

46) 터너, 빅터/ 이기우, 김익두 역. 『제의에서 연극으로』. 서울: 현대미술사, 1996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4) 리즘적 특성과 주체성 기반의 예배

앞서 장애인 온라인 예배의 개선점으로 고정적인 예배의 특성을 언급하며 리즘의 개념을 설명했는데 대안적 예배 모델로 리조메틱 예배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다뤄보고자 한다. 리조메틱 예배란 예배의 고정적이고 전통적인 형식에서 벗어나 일상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예배의 형식을 간접적으로 나타낸다. 비장애인과 같은 다수를 초점화하여 실행되었던 기존의 권위주의적 예배 방식에서 벗어나 장애인뿐 아니라 주목받지 못했지만, 누구나 고민할 수 있는 신앙적 문제를 개방적이고 수용적으로 다룸으로 각자의 다양성과 주체성을 인정한다.

구체적으로 리즘의 특성은 총 6가지가 있는데 첫째, 연관성(connection)이다. 가능성들을 제약하고 위계와 질서를 세우는 것을 강조하는 수목 모델과 달리 리즘은 어떤 다른 점과도 연관될 수 있고 연관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연관の結果는 항상 새로운 전체를 만들어 낸다. 둘째, 이질성(heterogeneity)이다. 이질성이란 다양한 종류의 다른 점들이 결합하여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 셋째, 다양성(multiplicity)이다. 리즘적 다양성은 차이가 어떤 하나의 중심으로 동화되지 않는 이질적인 것의 집합을 말하므로 하나가 추가되어도 전체의 의미를 크게 다르게 만드는 그런 다양성을 의미한다. 넷째, 비의미적 단절(asignifying rupture or aparallel evolution)이다. 리즘들이 의미작용의 구조를 내포하더라도 그 구조들을 파열시키며 탈영토화하는 비행의 선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다섯째, 지도 그리기(cartography)다. 리즘은 하나의 지도로 미리 수립된 한정된 범위 안에서 구조적인 모델의 흔적을 찾기보다 실재와의 접촉을 통한 실험을 위해 형성된다. 마지막으로 데칼코마니(decalsomania)다. 이는 재현과 대비되는 말로 모상을 정확히 옮기는 과정에서 대상의 변형이 일어나게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sup>47)</sup> 이런 특성을 예배에 종합적으로 적용하여 우리는 리즘적인 예배를 구성할 수 있고 수직적이며 권위주의적인 특징이 배제되어야 하는 장애인 온라인 예배에는 적합한 대안적 예배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특성이 상대주의를 극대화하여 예배의 본래 의미를 흔들 수 있지만, 예배의 근본(말씀과 기도)을 두고 뻗어 나가며 공동체 안에서 형성되는 대화이기 때문에 편협적인 사고로 이어지지 않으며 오히려 억압된 구조 안에서 맹목적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 혹은 장애인을 차별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예배의 구조에서는 꼭 필요한 문화 표상이다. 비선형적이고 주체성을 강조하는 리즘적 형식을 반영하여 일방적으로 전수하는 방대한 이야기식 설교, 설교자 중심의 수

47) 터너, 빅터/ 이기우, 김익두 역.『제의에서 연극으로』. 서울: 현대미술사, 1996

목(樹木)형 형태가 아닌 각자가 예배의 설교자가 되어 다양한 기독교적 주제에 대해 소통해 볼 수 있다. 또한 장애인들이 자신 나름대로의 답을 내고 정리할 수 있도록 주체성을 길러줄 수 있다.

## 5. 결론 : 장애인 온라인 예배 “사랑과 공동체 의식이 전제된 하나님의 나라”

기독교학을 공부하기 이전<sup>48)</sup> 재활학을 공부했던 사람으로서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주변에 장애를 가진 친구를 많이 두고 있었다. 장애인 봉사를 지속적으로 이어오면서 그들을 통해 평소에 인식할 수 없는 상황을 보고 접하게 되며 다양한 배움을 얻었다. 어느 날은 시각장애인 친구와 함께 찬양을 하는데 그날따라 친구가 한소네를 들고 오지 않아 찬양 가사를 알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그러자 그 친구는 찬양 시간에 자신에게 가사를 한 줄씩 미리 읊어줄 수 있겠느냐는 부탁을 했다. 필자는 흔쾌히 그 부탁을 들어주었고 함께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다.

그러자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었다. 한 번도 찬양 가사를 그렇게 음 없이 읽어 본 적이 없었는데 음과 박자를 신경 쓰지 않고 가사를 읊는 순간 가사가 마음속 깊이 새겨지며 뜻을 더욱 깊이 묵상할 수 있었다. 그저 그 친구와 함께 찬양하며 예배를 같이 드리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행동이 또 다른 은혜의 자리에 갈 수 있게끔 해준 것이었으며 결론적으로 그 친구는 가사를 볼 수 없었지만, 필자의 도움으로 찬양을 부르며 은혜를 받을 수 있었다. 즉, 그 예배의 자리 가운데서 행동하는 양식은 달랐지만,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공동체 의식 가운데 사랑이 무엇인지를 더욱 알게 되었던 순간이었다.

이처럼 예배란 먼저 사랑,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으로부터 예배를 구성하는 모든 것에 진심이 담기게 되며 그 누구도 하나님 안에서 소외당하지 않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장애인 예배 또한 함께 사랑으로 연합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코로나 이후 현재까지 대두되지 않았던 예배의 문제점들이 수면위로 더욱 드러난 것일 뿐이다. 즉, 이미 예배가 가지고 있었던 어두운 부분들이 코로나 상황에서 관심을 얻게 되었고 한편으로는 여전히 무관심인 경우가 많다. 위드 코로나(With COVID) 시대, 이는 코로나 19의 장기화에 따른, 코로나 19를 예방하며 일상생활을 해야 하는 시기 또는 정책<sup>49)</sup>을 의미하는 동시에 모든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어야 일상을 뜻하고 있는 지도 모른다. 지금까지 단절되었지만 수많은

48) 장애인 재활복지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에 부응하는 학문적 연구를 수행하고 효율적인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재활전문가를 양성하는 학문. 나무위키

49) 네이버 사전

매체를 통해 인간들은 함께 모이기를 힘썼다. 그만큼 인간은 공동체적이고 사회적인 동물이며 집합의 치유 효과는 존재한다. 따라서 이 특성이 예배에 적용되어 온라인 장애인 예배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여전히 발전되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 또한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 제시된 대안적 예배 모델을 참고하여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는 더 확장되어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지녀야 할 자세다.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장애인 예배의 기본적인 개념과 필요성을 알 수 있었으며 그 연장선에서 예배관찰보고서를 통해 알 수 있었던 개선점은 장애인 온라인 예배에서 주체성과 수평적 관계, 참여성이 결핍되어 있다는 점이었다. 따라서 예배 발전 방안은 환경적 지원 방안과 이론적 대안 예배 모델로서 참여적, 비차별적 언어의 사용, 퍼포먼스적 예배, 리즘적 특성의 예배 등 이었다. 이 모든 대안적 예배의 공통점은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비장애인과의 구별 없이 동등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서는 우리는 아주 엎드려지기를 반복해야 한다. 비장애인의 관점이 아닌 장애인들의 입장에서 귀 기울이고 그들의 요구에 맞춰 개선점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는 나이, 성별, 계급, 인종 등의 수많은 요소들을 뛰어넘어 차별받지 않는 공간을 이루는 것, 사랑과 공동체적 가치관을 실현하는 것, 그 첫 발걸음을 앞으로 독립변수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교회가 내딛길 바란다.<sup>50)</sup>

예수의 죽음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를 표하는 권리는 누구에게나 허용되어있다. 그 권리가 다수에 의하여 소수로부터 착취당하게 하지 않게끔 교회는 경계하고 대안적 모델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은 하나님의 창조물이자 하나님의 형상의 반영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오셔서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기뻐하신 예수의 마음을 깨달아 공감과 연대의 자세를 가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sup>51)</sup>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사랑과 공동체 의식이 전제된 하나님 나라일 것이다.

50) 안선희 (2018: p.60)

51) 김병현 (2019: P. 139)

## 참고문헌

- 김병현. (2019). 기독교의 시혜(施惠)적 장애 패러다임 재고(再考)를 위한 신학적(神學的) 성찰(省察). 장애의 재해석, 101-148.
- 김용구. (2014). 장애인의 교회교육 접근성에 관한 연구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서울.
- 크리스천투데이. (2021. 10. 31.). “코로나 이전부터 예배 못 오는 장애인 등 고려했더라면....”,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43444>.
- 김정희. (2003). 장애인을 위한 통합목회 방안. 이화여자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혜. (2019). 선량한 차별주의자. 서울 : 창비.
- 김재우. (2021). 온라인 예배를 위한 제안 [http://online.anointing.co.kr/bbs/board.php?bo\\_table=article&wr\\_id=7](http://online.anointing.co.kr/bbs/board.php?bo_table=article&wr_id=7).
- 김한호. (2010). 장애인과 함께하는 디아코니아, 서울:도서출판 한 장연.
- 안교성. (1990). 장애인은 선교의 문제이다. 장로회신학대학 기독교교육연구원편, 교육교회.
- 안교성. (1991). 장애인교육을 다시 생각해 보며(교육교회 제 185권), 서울: 장로회신학대학 기독교교육연구원.
- 안교성. (2003). 장애인을 잃어버린 교회. 서울: 흥성사.
- 안선희. (2018). 예배와 촛불집회의 의례·퍼포먼스적 성격에 관한 고찰. 신학과 실천, 58, 37-64.
- 오혜경. (1998). 장애인 복지학 입문.
- 터너, 빅터, 이기우, 김익두 역. (1996). 제의에서 연극으로. 서울: 현대미학사.
- 이은애. (2020.04.22.) “코로나19예배에서 소외된 사람들 3 : 발달장애인들” 뉴스엔조이, <https://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0579>.
- 이태영. (1985). 사회복지와 특수교육. 대구:대구대학교 출판부.
- 임종호, 이영미, 이은미. (2013). 장애인복지론. 서울: 학지사.
- 박대규. (2007). 장애인에 대한 성서적 이해와 선교방안. 목원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희봉, 이기중, 김명준. (2009). 퍼포먼스 이론에서 바라본 ‘2008년 촛불집회’의 과정 과 파급효과. 한국정책연구, 9, 93-114.
- 정상엽. (2006). 자폐성 발달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의 통합예배에 관한 연구.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신학석사과정 목회학 석사학위논문.

- 조기웅. (1999). 장애인과 함께 드리는 예배 모델 연구. 호남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정실. (2021).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시대의 하이브리드(Hybrid) 목회 전략. 제 81회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대회 제 2 발표.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1979). 한국 사회복지 총람. 서울:한국사회복지협의회 출판사.
-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2020). 코로나19와 한국교회 관련 통계조사 기사 연구.
- Albrecht, C. (1999). 김한옥 역. 예배학입문. 도서출판 바울.
- Berger, T. (2020). 안선희 역, 예배, 디지털 세상을 만나다, CLC, 2020.
- Ward, G. (2002). Between virtue and virtuality. *Theology Today*, 59(1), 55-70.

원고접수 : 2021. 11. 15.

수정원고접수 : 2021. 12. 16.

게재확정 : 2021. 12. 20.

Abstract

## The reality of online worship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after COVID-19

Han, Gyu Bi\*

In the With Covid situation, online worship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will be another new place of worship that continues to coexist with on-site worship. It will also guarantee the right to worship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create an environment that promotes religious freedom. Although there are currently findings on on-site worship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research on online worship with disabilities after the Corona is lacking, and attempts to observe and investigate online disability worship in order to create a society free of discrimination are essential tasks. In this sense, online disability worship from 2019 to 2021, which was formed after corona, may be the subject of research. The research was conducted using participatory observation survey methods to directly investigate currently broadcast online disability worship and conducted structural analysis based on a total of 10 criteria. The report was then prepared to provide improvements and alternative worship models. An analysis of the worship of the Church, which currently operates online disability worship, from the perspective of Christian values seeking to practice love in a horizontal relationship, found improvements in the format, structure, characteristics, and progress of the church. In this respect, we share the disabled worship that the Church should pursue in the With Covid situation by presenting various worship models, such as participatory worship models and performance worship models. An important feature of online disability worship was subjectivity, horizontal, non-visionary, and engagement. In other words, horizontal structures were required as disabled people attending worship became subjects, participating in worship, and offering prayers, praise, and words to God in a virtual space through worship. To make this happen, the finer

---

\* Department of Christian Studies, Ewha Women's University

elements of worship had to be change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disabled parties, and there were parts that needed to be added. Non-disabled people are not different from people with disabilities. They, too, are prospectively disabled and we all have the right to worship with one heart and meet God freely. Worship is one of the essential religious lifestyl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As such, worship should be carried out in a way that breaks away from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as a community that goes beyond age, gender, race, and values etc. in the rehearsal of the nation of God.

**Keywords : Disabled Online Worship, With Covid, Subjectivity, Non-Discriminatory, Engaged**